

민선 8기 화두는 '민생 안정·일자리 창출'



강기정 광주시장(왼쪽)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지난 1일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광주시·전남도 제공

광주시·전남도 첫 결재 의미

강기정, 고유가·고물가 100일 대책
공공물가 인상 억제·취약층 지원
김영록, 첨단·전략산업 30조 유치
청년이 바라는 좋은 일자리 집중

민선 8기 광주시와 전남도를 관통하는 화두는 민생 안정과 좋은 일자리였다. ▶관련기사 3면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의 취임 직후 첫 결재 역시 이 같은 시대정신과 의지가 고스란히 반영돼 지역민들의 안정적인 삶과 기업유치 등에 시도정의 방침이 적혔다.

강 시장은 지난 1일 취임식 직후 첫 결재로 '고유가·고물가 100일 대책' 추진안에 서명했다. 이번 대책은 25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공공물가 억제, 경제안정망 강화, 지역 경제 유지를 위한 소비 촉진 등 3개 분야 9개 과제를 추진하며, 이를 통해 810억원 규모의 재정집행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공공요금에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심리적 지표라는 판단하에 상·하수도, 도시가스, 시내버스·택시 등 서민경제와 직결되는 공공요금 10종의 조정(인상) 시기를 2023년 이후에 검토하기로 했다.

시민들의 호응도가 높았던 광주상생카드도 추경 예산 확보를 통해 10월 중에 사용이 재개되도록 할 계획이다.

강 시장은 첫 결재 직후 간부 공무원들과 함께 지역 민생안정 대책을 위한 현안 토론회를 진행했다. 취임 첫 날 통상적인 신인 시장과 간부 공무원 간의 상견례 대신 민생대책 관련 토론회를 실시

한 것은 형식적 행사를 지양하고 속도감 있게 민생현안을 챙기겠다는 의지다.

강 시장은 "물가, 유가, 금리의 삼중고에 처해 있는 시민들에게 정부 정책에만 의존하지 않는 광주만의 맞춤형 물가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번 민생 100일 대책은 물가안정, 경영안정, 경제유치가 핵심이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전남지사의 첫 결재는 ▲첨단·전략산업 30조원 투자유치 계획 ▲어려운 도민을 위한 '우리 동네 복지공동체' 확대 계획 ▲고품질 쌀 산업 육성 종합계획 등 3가지로, 일자리·경제 대도약과 도민 소득·행복 증대에 방침이 적혔다. 1호 결재인 '첨단·전략산업 30조원 투자유치 계획'은 민선 8기 지역경제 발전 의지가 담겼다.

김 지사는 경제 활성화와 청년이 바라는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반도체·우주항공·데이터 등 전남의 100년을 책임질 미래 신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어려운 도민을 위한 우리 동네 복지공동체 확대 계획'에는 도민 행복 증진을 도정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지난 2019년 4월 전국 최초로 출범한 '우리 동네 복지공동체'는 위기 상황에 놓인 가구가 더 큰 어려움에 부딪치지 않도록 생계, 의료, 주거비를 지원한다. 전남도는 올해 사업비로 지난해보다 7억4,200만원이 많은 38억원을 투입, 7,500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고품질 쌀 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통해서도 민생 안정과 농도 전남의 위상 제고를 꾀한다. 생산비 절감과 품질 고급화로 농가소득을 높이고 식량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종합계획 추진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김 지사는 "민선 8기에는 정치적 의제보다는 전남이 살아 숨 쉴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고 민생 현안을 점검·해결하는 데 최우선 목표를 두고 뛰겠다"고 말했다. /길용현·오선우 기자



ACC 빅도어시네마 무더운 여름밤이 이어진 2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극장1 야외무대에서 열린 'ACC 빅도어시네마' 행사에서 시민들이 프랑스 파리에서 펼쳐지는 과거와 현재, 현실과 환상 사이를 넘나드는 사랑을 주제로 한 '미드나잇 인 파리 (Midnight in Paris)'를 보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김태규 기자

올 수능 11월 17일 치른다

교육평가원, 세부 계획 발표

국어·수학 '공통+선택' 적용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문·이과 통합 체제로 치러지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1월 17일 시행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3학년도 수능 시행 세부 계획을 3일 공고했다.

올해 수능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문·이과 구분 없이 국어와 수학 영역은 '공통과목+선택과목' 체제로 치러진다.

수험생들은 공통과목을 응시하고 국어는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1개 과목, 수학은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1개를 선택해 응시하게 된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영어와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절대평가로 치러지며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사회와 과학 구분 없이 17개 선택과목 중에서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

다. 직업탐구 영역도 6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4교시 한국사·탐구 영역 시험에서는 수험생에게 한국사와 탐구 영역 답안지를 분리해 별도로 제공한다.

한국사 영역은 필수로 지정돼 미응시자의 경우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되고 성적 전체가 제공되지 않는다.

평가원은 한국사는 고등학교 졸업자가 갖춰야 할 우리 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하기 위해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평가하게 출제할 계획이다.

EBS 수능교재와의 연계율은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50% 수준이다.

수능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다음달 18일부터 9월 2일까지 12일간이며 성적 통지표는 12월 9일 수험생에게 배부된다. 응시원서에 부착하는 사진은 원서접수 시작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여권용 규격 사진이어야 한다. /최환준 기자

'떨떨 끓는' 한반도

오늘 소나기...차차 해소 전망

광주·전남 22개 시군 전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됐다.

3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를 기해 나주와 화순 등 2개 시·군에 발효됐던 폭염주의보가 경보로 격상됐다.

폭염정보는 일일 최고 체감온도 35도를 넘는 상태가 이를 이상 계속되거나 더위로 큰 피해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

앞서 지난달 30일부터 전날까지 전남 22개 시군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져 최대 3일째 지속되고 있다. 다만 이번 무더위는 비가 내리는 4일 오전부터 차차 해소될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했다.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5~40mm로 전망된다. /민찬기 기자

INSIDE NEWS

- 5·18기록관, 흠어진 기록물 모은다 ▶2면
- 광주 6월 숙취운전 57건 적발 ▶7면
- 전매초대석 / 김영록 전남지사 ▶8면

전남 도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신청 없이 자동가입

전라남도 도민 안전공제보험

전라남도는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도민의 일상복귀를 돕는 전(全)도민안전공제보험 가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장내역

보장대상 |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도민(등록 외국인 포함)

보장금액 | 보장항목별 2,000만원 한도
* 시·군별 보장 시기, 항목 및 한도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보장지역 | 국내에서 발생한 사고(국외 사고 제외)

보험청구 절차

청구시기 | 사고일로부터 최대 3년내 청구 가능 (보장개시(20. 2. 1.)이후 사고)

구비서류 |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등

기타문의 |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 시·군별 가입보험사 및 담당자 연락처 참조

보장내역(11개 항목, 최대 2천만원 보장)

- | | |
|-----------------------|---------------------|
| 1 자연재해사망(일사·열사 포함) | 7 강도 상해사망 |
| 2 익사사고 사망 | 8 강도 상해후유장해 |
| 3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 9 농기계 상해사망 |
| 4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후유장해 | 10 농기계 상해후유장해 |
| 5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11 스포츠 관련 교통사고 부상치료 |
| 6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
- * 시·군별 보장항목 및 한도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